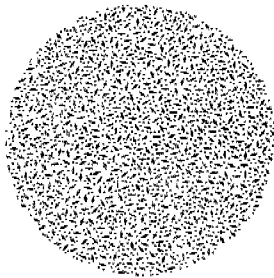


1. 中東地域 經濟與件의 概觀

中東情勢와 今後的 韓國經濟

The Middle East Situation and Coming Korean Economy



崔 基 鍊

韓國動力資源研究所 에너지政策部長

人口, 技術, 經濟力 規模等에 비추어 國際經濟構造上 영향력 행사에 한계가 있는 中東諸國이 과거 10여년간 世界經濟 運用에 있어 중요한 主導者 役割을 담당해 왔다. 이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中東諸國들의 유일한 經濟資源인 石油의 價値와 영향력이 世界經濟秩序의 改編, 資源民族主義의 擴大에 힘입어 크게 伸張된 事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1973年 以後 1980年初까지는 中東產油國들의 경제적인 지위가 「오일머니」의 集積과 함께 크게 높아지고 世界規模에서는 이 「오일머니」의 循環이 均衡있는 世界經濟 發展에 있어 큰 관심사항이었다. 더구나 일거에 1973~74年中 約 4 倍의 油價引上에 따라 가장 타격을 받은 國家들은 非產油開發途上國들로서 석유수입대전의 충당을 위해 外債 增加를 감수했어야 했다. 先進工業國들은 產油國들의 「오일머니」의 還流過程에서 필요한 資本財, 高級 生必品 輸出, 產油國 잉여자금의 貯蓄對象地化 등으로 1980年 第二次 石油波動時에는 이미 石油 「쇼크」를 극복할 수 있는 體制를 具備하였다. 이에 中東 「러쉬」現象이 일어났으며 產油國을 비롯한 中東諸國의 經濟社會成長은 空前의 속도로 擴大되었고 道路, 주택등 社會間接資本 擴充에서 나아가 石油化學工業等 産業化 戰略이 產油國에서 추진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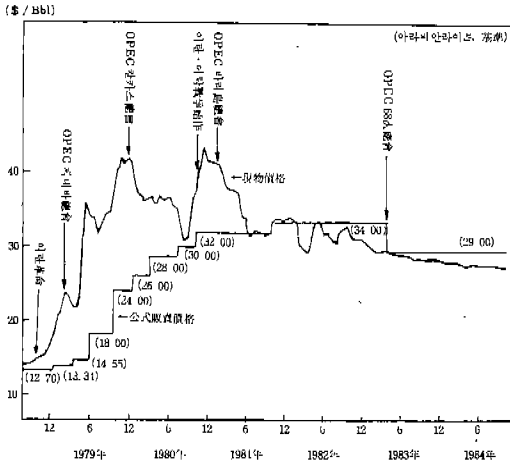
그러나 政治的 考慮等 非經濟的 要因이 石油價格을 결정함에 따라 石油代替 努力의 擴大와 함께 石油輸入國들의 經濟政策이 石油輸入代錢 急增에 따른 「인플레이」抑制 爲主로 轉換됨에 따라 全般的인 不況이 70年代 있어왔고 따라서 石油의 絶對需要量이 一部 先進國에서 減少되는等 石油市場의 弱勢가 示現되었다. 이에 따라 世界石油價格 (各目價格기준)은 1973年 「배럴당」 2.5달러에서 1975年 10.5달러,

〈世界 地域그룹別 經濟與件 變化推移〉

地域그룹	1980年 人口 (백만명)	1980年 1人當 국민소득 (\$)	GDP 성장률 (년평균%)		
			1960~73	1973~79	1980
開發途上國	3,280	650	6.3	5.2	2.5
中所得產油國	494	1,320	6.9	4.9	-2.4
高所得產油國	16	14,250	10.7	7.7	2.4
先進西方產油國	715	10,440	4.9	2.8	1.3

자료: 세계은행 1984년 報

世界石油市場 動向의 推移 (2次波動 以後)



1981년 32달러 1982년 34달러로 續落勢를 지속하였으며 1983년 29달러 現在는 28달러 水準에 있다.

이같은 석유 弱勢與件에서 OPEC은 세계석유시장에서 수요변화에 따라 會員國들이 보유한 供給能力을 언제나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Swing Producer의 役割을 현재 다하지 못하는 限界狀況에 있다.

이는 앞의 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OPEC 會員國中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같은 多人口保有로 財政支出은 많고 相對的으로 產油量이 적은 국가들과 사우디아라비아등 少人口, 富國들과 石油問題에 대한 共同步調을 취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最近推定値에 의하면 1982年 以後 OPEC諸國의 經常計定赤字는 670億달러에 達하고 OPEC公示 油價가 1달러 下落하면 財政赤字는 年間 약50억달러 늘어나게 된다.

最大產油國인 사우디아라비아의 外換保有高가 3년전 1500억달러에서 금년초에는 1000억달러로 감소되었다.

더구나 非OPEC지역 產油量이 1984年 自由世界 全生產量의 50.8%를 점하고 있어 OPEC의 市場占有力은 弱화되었으며 1984年 경우 非OPEC地域 產油量이 前年比 5% 증가하였으나 OPEC產油量은 오히려 전년대비 0.5% 감소하였다.

따라서 영국, 노르웨이등 非OPEC產油國들이 油價를 現物市場價格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은 「카르텔」 기능에 의한 OPEC의 談合價格이 世界 石油市場을 지배하던 시대에 대한 中대한 도전이다.

그러나 共產圈 產油量을 포함하면 현재 세계생산

의 30%를 차지하는 OPEC의 現位置에서는 生産減縮을 통한 現油價體係의 완전붕괴를 방지하려는 자기희생적 대처 방안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에 있다. 이에 불가피한 石油販賣取益 減少를 前提로 中東諸國은 投資縮少등 과거 擴大指向의이던 경제운용방침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

금년 경우 產油國들은 국제수지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작년의 倍가 넘는 100억달러를 국제금융 시장에서 차입하여야 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가 전년 이어 「마이너스」 成長을 시현할 가능성이 있는 등 불가피한 低成長의 시현을 中東諸國들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中東 主要國의 實質GDP 成長 展望〉

單位 : %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사우디	-3.3	-22.4	-3.7	-0.9	3.6	2.8
쿠웨이트	-9.0	8.7	3.3	4.2	4.3	6.6
U. A. E.	-9.4	-6.3	-0.5	3.4	4.6	7.3
이란	7.8	2.5	1.2	5.9	4.4	5.2
이라크	-5.0	-4.6	-0.8	-1.0	11.9	16.0
오만	8.6	12.2	7.1	2.9	4.8	6.5

자료 : 산업연구원

2. 中東情勢가 우리經濟에 미치는 影響

現在 우리나라 總에너지需要의 절반이상(1984年, 52.3%)을 담당하는 石油의 대부분(1984年 : 68%) 中東地域에서 수입하고 있는 與件에서 中東諸國의 石油情勢는 우리 經濟의 全般에 큰 影響을 미치고 있다. 가장 直接的인 影響이 미치는 部門은 物價와 國際收支 및 外債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世界的으로 1970年代 高인플레이는 石油波動이 시발한 基礎資源價格 上昇에 기인한 바가 크며 輸入 에너지 比重이 큰 우리나라로서도 原油價格 上昇이 先導한 輸入 「인플레이」는 國內物價 上昇을 主導하였다. 即 1971~83年 期間中 國內 都買物價가 7倍, 消費者 物價가 6倍 上昇한 데 反해 全에너지 價格指數는 19倍, 石油價格은 무려 34배나 增加하였다. 더구나 國內物價 上昇은 石油波動期인 1974~75年 期間과 1979~81年 期間中 급격하여 에너지價格, 特別히 輸入石油價格이 物價에 直接적인 決定因子化 된

〈에너지價格과 物價〉

(單位：年平均上昇率, %)

	1971-1973	1974-1975	1976-1978	1979-1981	1982-1983	1971-1983
石 油	21.8	91.6	4.1	56.5	1.2	29.7
無 煙 炭	13.3	32.9	28.2	31.3	9.2	22.9
産業用電力	3.3	42.3	11.0	44.0	2.9	19.0
에너지 計	13.8	67.8	10.0	48.2	2.9	25.4
都 賣 物 價	9.9	33.8	10.9	25.7	2.4	15.8
消 費 者 物 價	9.3	24.8	13.3	22.7	5.3	14.9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1971~83年 期間中 年平均 國內 都賣物價 上昇率 15.8%中 에너지價格寄與度가 49%로 分析되고 있어 石油를 主從으로 하는 에너지價格의 波及效果를 예의 분석해야할 필요성을 提示하고 있다.

특히 石油價格은 產油國 輸出單價 上昇이 國內油價에 반영되고 이는 다시 石炭價格과 電氣料金에 영향을 주면서 일반물가에 파급되는 인과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1971~83년 기간중의 실적을 분석하면 원유가격 10% 인상은 국내유가 11.3%, 도매물가 6%, 전기요금 7.3%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價格彈力性效果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國際收支 部門에서는 에너지輸入單價 上昇과 輸入物量 增加(해외의존도 75%線)로 에너지는 우리 輸入의 主宗品이 되었다. 즉 에너지 輸入額이 總輸入에 占하는 比重은 現在 25% 수준에 있고 原油 한 품목의 比重이 1983年 21.3% 1984年 18.8%를 占하고 있다.

특히 輸入에너지의 大宗을 이루는 石油는 국제수지 악화 → 換率 조정 압력화 → 交易條件 惡化 → 實質에너지輸入負擔 增加 및 國民實質 所得의 海外流出이라는 악순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分野投資는 資本集約的이고 투자회임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 경우와 같은 개발도상국으로서의 外債依存的 構造를 탈피하기가 힘들다. 더구나 開發途上國의 경우지만 73年 이래 石油를 主宗으로 하는 燃料輸入價格 上昇이 광물자원의 4배이상, 非穀物資源 및 工產品의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石油輸入代錢 充當을 위한 外資調達을 外債에 의존하여 왔다.

이에 우리의 경우에도 年50억弗 이상의 원유를 도입하여야 하며 에너지部門 外債는 전외채의 약

〈原油導入價格에 對한 國內物價의 彈力性〉

	年平均上昇率 (1971-1983)	對原油價格彈力性值
原油導入複合單價(F. O. B)	26.2%	
國內 油 價	29.7%	1.13
國內 無 煙 炭 價	22.9%	0.87
産業用 電 氣 料 金	19.0%	0.73
에 너 지 價 格	25.4%	0.97
都 賣 物 價 指 數	15.8%	0.60
消 費 者 物 價 指 數	14.9%	0.57

자료: 동력자원부: 2000년대를 향한 장기에너지전망

〈에너지 輸入額 推移〉

(單位: 經常 百萬弗)

	1970	1974	1980	1983
에너지 輸入額	136	1,025	6,589	6,587
對輸入比重(%)	6.9	15.0	29.6	25.1
對GNP比重(%)	1.7	5.5	10.8	8.8
原油 輸入代錢	119	1,105	5,654	5,268
對輸入比重(%)	6.0	16.1	25.4	20.1
對GNP比重(%)	1.5	6.0	9.2	7.0

자료: 동력자원부

〈세계주요 상품의 수출가격 변동추이〉

(년평균 %)

구 분	1965~73	1973~80	1981
개도국수출식량자원	6.6	7.8	-16.1
개도국수출비식량자원	3.7	10.1	-14.6
광산물, 금속류	1.6	5.6	-12.0
연 료 (석 유)	6.7	24.7	10.5
공 산 품	4.7	10.9	-4.2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4

16%에 해당하는 66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에너지部門 外債現況)

(單位：百萬弗)

	1982	1983	1984*
○石 油	2,441	2,289	2,256
精 製 施 設	407	378	343
L P G	33	35	33
試 錐 船		29	33
유 전 스 平 殘	2,001	1,847	1,847
○L N G	1	37	67
○電 力	3,643	4,235	4,700
○石 炭	15	18	29
計	6,100	6,579	7,052
總外債에 대한 比 重	16.4%	16.2%	16.2%

* 推定值임.

3. 中東情勢와 관련한 우리 經濟의 課題

우리 經濟와 中東地域과의 관련은 무엇보다도 中東產 原油의 適期, 適價 安定確保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

上述한 바와 같이 現在 世界石油情勢는 수요신장세 둔화, 供給過剩 그리고 一部 產油國들의 經濟的 危機에 따른 石油割引販賣 및 供給「쿼터」超過等으로 中東產油國들은 상당한 곤란을 받고 있다. 그러나 現 우리 經濟에서 필요한 것은 과연 產油國들의 地位가 장기적으로 弱화될 것인지 혹은 또다시 에너지 危機, 石油波動이 倒來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평가일 것이다. 現在 OPEC會員國 保有 石油確認 埋藏量은 全世界의 3/4에 해당하는 4480억「배럴」이며 그중에서도 中東產油國들은 가장 개발전망이 밝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現狀態에서는 수요가 공급능력에 미달하기 때문에 油價係가 붕괴될 조짐도 있지만 장기적인 평가면에서는 中東產油國들의 영향력은 무시 못할 수준에 있다.

現在 OPEC의 產油能力과 財政支出所要等を 감안할 때 OPEC產 石油需要가 16~17百萬배럴/日 (b/d)수준으로 하락하면 世界油價는 產油國이 통제할 수 없는 弱勢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고 OPEC產 石油需要가 20~21百萬b/d)에 까지 증가하면 產油國은 產業開發등에 相當할 충분한 석유 판매수입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OPEC產 石油需要가 21百萬b/d에 達하기까지는 石油市場弱勢가 예상된다. 이에 다음 表와 같이 自由世界 長期 石油需給展望을 기초로 할 때 OPEC產 石油需要는 1983年 17百萬b/d에서 1990년에는 21~23百萬 b/d, 今世紀末에는 25~32百萬b/d로 늘어날 것으로 豫見되어 1990年代 中盤부터는 中東產油國의 經濟與件이 크게 改善될 可能性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세계 장기 석유수급 전망¹⁾

단위：백만b/d

구 분	1983(실적)	1990	2000
수 요	44.9	47.7~51.1	52.7~62.3
공 급			
비 OPEC	24.3	25.5	26.5
공 산 련 수 출	1.6	0.5~0.8	0.5
OPEC NGL	1.0	0.9~1.2	1.2~3.0
OPEC 원 유	17.0	20.8~23.6	24.5~32.3
OPEC 공급능력			
생산소망수준 ²⁾	24.0	28.5	30.5
수 출 여 력 ³⁾	20.7	24.1	24.3

주 : 1) Processing Gains 및 한성유 포함.

2) 기술적 제약 및 정부산유량 제한 감안

3) 내수 소비 공제

자료：Energy Supply：The Power of the Producer, by Fereidun Fesharaki, Resource Systems Institute, East-West Centre.

만일 中東產油國들이 유일한 經濟資源인 石油의 長期的인 效率的 開發과 資源保存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所望生産水準을 現在 24百萬b/d, 1990年代 28~29百萬b/d, 2000년 30百萬b/d를 고수할 경우 OPEC의 영향력은 급속히 신장되고 가격상승 압력이 강하게 나타날 소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존하고 있다.

또한 中東產油國들이 精油施設등 下流部門의 投資를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는 原油와 石油 精製品을 함께 묶어 販賣하는 경우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長期展望下에서 우리 경제의 當面 課題는

1) 石油依存度를 감축하는 효과적인 에너지需給 對策의 施行

2) 原油 安定確保를 위한 原油導入의 效率性 提

高, 石油備蓄의 推進, 石油開發事業 參與 擴大 등 諸般 施策의 積極적 推進

3) 中東地域 商品 및 建設市場 進出擴大를 위한 石油情勢에 입각한 탄력적 對處方案 樹立으로 區分할 수 있을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의 에너지需給展望은 石油代替 強化로 1983年 56.2%의 石油依存度를 2001년에는 40% 以下로 低下시킬 계획에 있다. 그러나 主宗에너지로서의 石油의 地位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絶對物量面에서는 1983年 日52萬배럴에서 2001년에는 日99萬배럴로 倍加될 것이어서 石油 安定供給의 重要性은 變함이 없다.

그러나 石油爲主의 現經濟構造를 改編하여 이같은 脫石油政策을 樹立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에너지 消費節約 (使用合理化) 對策과 石油代替에너지源의 開發이 성공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선 에너지節約面에서 에너지彈性值(에너지소비증가율/GNP증가율)을 1970年代의 1水準에서 1990年代에는 0.7水準以下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LNG, 유연탄등 石油代替源의 보급확대와 함께 2001년에는 1次에너지의 약 40%를 소비하게 될 電力部門의 發電源別 構成도 脫石油爲主로 展開되어야 할 것이다.

原油의 長期 安定確保는 導入先의 多邊化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原油의 中東依存度가 1984年

〈발전설비 구성전망〉

(단위: 千kw)

年度 區分	1984	1991	1996
石油	7,113 (52.3)	4,425 (21.2)	3,112 (11.3)
原子力	1,916 (14.1)	7,426 (35.6)	7,616 (27.6)
石炭(유연탄)	1,620 (11.9)	2,840 (13.6)	9,140 (33.2)
水力 및 기타	2,952 (21.6)	6,155 (29.5)	7,669 (27.9)
총계	13,601 (100)	20,846 (100)	27,537 (100)

주: ① 괄호내숫자: 구성비 (%)

② 水力 및 기타: 혼소발전, LNG발전포함

자료: 동력자원연구소

68%인 現우리 與件에서 最少한 40% 以上の 非中東油導入体制가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세계원유매장 및 생산여건에서 중동지역 비중이 60% 水準이라는 事實과도 연관이 있다. 또한 장기적인 세계석유정세의 정확한 豫測能力을 갖추므로써 市場이 弱勢일 때 최대한 現物石油市場을 活用하면서 경제적 원유구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適正水準의 長期供給契約을 통해 安定性 保障을 期하는 彈力的 對應能力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課題이다. 長期 供給契約物량을 最少化하면서 安定性を 提高하는 補助手段으로 石油備蓄을 실시하고 선진국이 독점하던 石油開發事業에 參與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源別 需給量展望〉

區分	單位	1983	1986	1991	1996	2001	年平均增加率 (%)		
							70年代	80年代	90年代
石油	千Bbl	191,294	223,430	267,117	305,342	359,599	9.9	3.9	3.0
無煙炭	千屯	21,670	23,279	21,324	19,832	18,667	6.3	- 0.0	- 1.3
有煙炭	千屯	9,633	14,462	20,885	34,935	51,075	63.0	10.9	9.4
L N G	千屯	-	403	2,000	5,000	5,000	-	-	9.6
水力	GWH	2,723	3,001	4,060	4,236	5,075	7.5	4.1	2.3
原子力	GWH	8,965	21,698	47,335	58,701	82,559	-	32.2	5.7
新·再生에너지 및 其他	千TOE	2,378	2,171	2,201	2,803	3,934	- 4.9	- 1.2	6.0
總에너지	千TOE	49,700 (100)	59,654 (120)	79,099 (159)	99,889 (201)	124,155 (250)	8.2	5.6	4.6
發電用燃料	千TOE	11,736 (100)	16,144 (138)	23,877 (203)	33,512 (289)	45,706 (389)	13.9	9.3	6.7
最終에너지	千TOE	41,629 (100)	48,414 (116)	62,546 (150)	76,826 (185)	92,874 (223)	7.6	4.8	4.0

자료: 동력자원부

*